

사무엘하 17. ‘아히도벨’의 전략 vs ‘후새’의 전략 (삼하 17 장 1-29 절)

들어가기

지난 시간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왕궁옥상에서 공개적으로 취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권장악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압살롬은 이제 본격적으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아히도벨’이 먼저 자신이 세운 전략을 발표했고, ‘압살롬’은 ‘후새’에게 ‘아히도벨’이 세운 전략이 어떠한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후새’는 ‘아히도벨’의 전략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전혀 다른 전략을 내놓았고, ‘압살롬’은 ‘후새’가 세운 전략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후새’는 ‘다윗’의 부탁대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서 ‘압살롬’의 모든 상황을 자세하게 전달하며 위기에 빠진 ‘다윗’을 전심을 다해 도왔습니다.

1. ‘다윗’을 죽이기 위한 ‘아히도벨’과 ‘후새’의 전략은 무엇이었나요? (1-14 절)

1) ‘아히도벨’ ->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빨리 ‘다윗’ 한 사람의 목숨을 죽여야 한다는 것! (1-4 절)
 ✧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구심점은 결국 ‘다윗’ 한 사람이기에 지금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는 ‘다윗’만 죽이면, ‘압살롬’의 반역은 쉽게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

2) 그러나 ‘후새’는 이런 ‘아히도벨’의 전략을 다음 4 가지 이유로 반대하였습니다. (5-10 절)

- ①.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전쟁에 능한 영웅들!
 - 8 절,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 ‘용사’ = 히브리어 ‘깁보림’ -> ‘영웅’
- ②.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지금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격분해 있음 (8 절)
- ③. ‘다윗’은 병법에 능한 자라 분명히 지금은 굴 같은 안전한 곳에 피해있을 것! 따라서 그런 ‘다윗’을 찾아 죽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
- ④. 또한 만약 ‘다윗’을 치다 실패하여 ‘압살롬’의 사람들이 죽게 될 경우, 오히려 ‘압살롬’ 군대의 사기만 더 떨어뜨리게 될 것!

3) 그럼 ‘후새’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11-13 절)

- ①. 한마디로 인해전술로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을 한번에 다 죽일 것!
 - 이스라엘의 모든 장정들을 모아 그 힘으로 다윗의 군대를 덮쳐 멸절시켜야 한다고 주장.
 - 특별히 13 절을 주목해 보면,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 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 ②. 이때 ‘압살롬’이 친히 전장에 나가 모든 군사를 직접 지휘해야 한다고 주장.

✧ 학자들의 코멘트

- 이런 ‘후새’의 전략은 ‘압살롬’의 교만과 명예욕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했음.
- 그러나 이런 ‘후새’의 전략은 인간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는 전적인 인본주의적 사상을 잘 드러낸 예.

4) 두 사람의 전략을 다 들은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전략보다 ‘후새’의 전략을 더 낫게 여겨 선택하였습니다. (14 절).

☆ Why?

- 그의 생각에 ‘후새’의 전략이 더 안전하고 맞는다고 판단했기 때문.
-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결정)하셨기 때문이라 증언!

‘... , For the LORD had determined to frustrate the good advice of Ahithophel in order to bring disaster on Absalom.’(Niv.)

☆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 결과였음!

- 삼하 15 장 31 절

‘... ,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잠언 16 장 1 절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고 했고, 잠언 16 장 9 절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계획과 지혜를 소유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공의와 지혜의 통치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후새’는 이 모든 상황을 ‘다윗’에게 보고하였습니다. (15-22 절)

1) ‘후새’는 어떤 경로를 통해 모든 정보를 다윗에게 전달했나요?

☆ ‘후새’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어떤 계집종 ->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 (어떤 여인의 도움) -> ‘다윗’

- 주목 1. 이들은 각각 다른 신분과 위치의 있었던 사람들이었으나 같은 목적과 마음으로 하나되어 어려움에 처한 ‘다윗’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 헌신한 사람들이었다는 것!

☆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다 같은 목적으로 하나되어 함께 세워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 또한 당시 어려움에 처한 ‘다윗’을 위해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다윗’을 지키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은 오늘 마찬가지로 그의 자녀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또는 위기의 순간에 처할 때, 여러 돕는 손길들을 마련해 주시고 도와 주실 것을 알고 믿음으로 힘을 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주목 2. 특별히 여기서 주목해 볼 두 사람이 있다! -> 바로 ‘어떤 계집종’과 ‘어떤 집의 여인’

☆ 이들 두 사람은 모두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 ✧ 또한 이 두 사람 어떤 특별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음!
-> 심지어 한 사람은 계집종이었음!!
- ✧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모두 당시 그 어떤 고위층의 사람들보다 더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위기에 처한 ‘다윗’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었음!!

- ✧ 마태복음 25 장의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자!
- 비록 오늘 우리 자신이 ‘한 달란트’ 만을 가진 보잘 것 없고 약한 존재라 하더라도 그것을 땅에 숨겨두지 말고, 우리가 가진 그 한 달란트로 이웃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적극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

2) ‘다윗’은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통해 ‘후새’가 전한 소식을 듣자마자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 궁금증 하나? -> ‘다윗’은 왜 미리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을까?

3. ‘아히도벨’은 자신의 전략이 ‘압살롬’에게 채택되지 않자 실망하며 고향으로 돌아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23 절)

1) ‘아히도벨’이 자살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 ①. 우선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을 것
- ②. ‘압살롬’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 결국 이 반역은 실패로 끝날 것이라 예측
- ③. 따라서 자신의 미래는 소망이 없을 것이라 판단 -> 미래에 대한 절망!!

- 참고로 자살충동을 느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두 가지 공통점
->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자기주인의식!
-> 미래에 대한 절망감으로 찾아오는 현실의 무의미와 상실감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

▪ 그럼 자살을 보는 교회의 관점은 어떠할까?

- ✧ 출애굽기 20 장 13 절 => ‘살인하지 말라’
- Why? ->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
- 이때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남의 생명만을 해하지 말라는 의미인가?
- 모든 살인은 다 하나님께 죄이며,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는 것도 살인임을 알아야 함!
- 한 신학자: ‘자살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는 큰 죄이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는 미래에 대한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고 오늘의 삶에서 피난처를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살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유를 얻겠다고 자기 생명을 해하기 보다는 그 순간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과 위로를 듣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야만 할 것입니다!

4. ‘압살롬’의 반역으로 나타나는 대조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 곧 위기에 처한 ‘다윗’을 버린 사람들과 ‘다윗’을 도운 사람들 (25-29 절)

1) ‘압살롬’은 ‘이드라’의 아들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한 이스라엘의 군대장관으로 세우고, 모든 군대를 이끌고 직접 ‘다윗’을 추격하였습니다. (25-26 절)

- ✧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마사’의 아버지 ‘이드라’가 누구인가? 라는 사실이 중요!
 - 그는 ‘다윗’의 누이인 ‘아비가일’의 남편이었음!! (역대상 2 장 16-17 절 참고)
 - 곧 ‘압살롬’과 ‘아마사’는 고종사촌 지간이었음.

✧ 따라서 당시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에는 불행히도 ‘다윗’의 친족들을 물론 직계 가족들까지도 상당수 동참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참고로 ‘다윗’은 모든 반란이 진압되었을 때, ‘아마사’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었으나 (삼하 19:3), 세바의 반란 때에 ‘아마사’는 또다시 왕명을 거역하다 마침내 ‘요압’에게 죽음을 맞게 되었음.(삼하 20:10)

2) 이런 ‘아마사’와는 정반대로 ‘다윗’을 도와준 뜻밖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7-29 절)

- ①. 암몬 족속의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 ②.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 ③.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실래’ -> 특별히 그는 당시 80 세 노인이었음.(삼하 19 장 3 절)

✧ 이들은 다 이방민족들이었음! -> 과거 다윗의 적들이라고도 할 수 있음!

✧ 그런데 이들이 나와 ‘다윗’과 그 일행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었다는 것!

✧ Why?

- 29 절 ‘...’,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 곧 ‘다윗’에게 무엇인가 얻기를 바라고 기대해서 시작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
- 이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선한 일을 하도록 역사하신 것이 아닐까?
- 빌립보서 1 장 6 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것! -> 지금 다윗이 머물고 있던 장소가 어디인가? -> ‘마하나임’

✧ 이 ‘마하나임’은 일찍이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 형 ‘에서’를 만나러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천사)를 만나 새 힘과 평안을 얻었던 곳!

- 창 32 장 1-2 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시편 23 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며,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주셨다’고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크고 작은 삶의 역경을 만나 힘들어 할 때, 뜻하지 못한 은혜의 손길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 오늘 내용을 통해 새로 묵상했거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 중보기도 나눔.